

충청북도 전입인구의 이전요인에 관한 기초 연구

Basic Study for In-migration Reasons in Chungbuk Province*

**채성주

***설영훈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differences of migration factors depending on region and individuals in Chungbuk Province. In order to this research, extraction data from Statistics Korea's Micro Data Service System(MDSS) was utilized. The Chi-square test was used to detect differences of immigration reasons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 moving-in and moving-out. And the outcome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1% significance level. The most significant in-migration reason was 'job'(55.5%), 'family' and 'house' recorded the 2nd and 3rd position respectively. In the case of teenagers, the percentage of 'family' and 'education' is high. The rate of 'house' is highest in sixties, the rate of 'family' is lowest in forties. Examining the in-migration reasons of females, 'job' was first, followed by 'family' and 'hous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males, 'job' was first, followed by 'house' and 'family'. The percentage of 'house' is higher than 'family' in Cheongju, Cheongwon and Jeungpyeong while 'education' is the highest factor in Yeongdong and Jecheon. The in-migration reasons of migrants from Seoul, Daejeon, Chungbuk and Jeju showed a pattern.

Key words : In-migration, In-migration Reasons, MDSS, Chungbuk

* 본 논문은 2013년도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도정기획과제 “충청북도 지역유형별 인구이동 특성”의 일부를 발췌, 수정·보완한 것임

**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csj@cri.re.kr

***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hseol@cri.re.kr

I. 서론

인구증가는 공급측면에서 노동력 확보를 통해 생산증가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서 내수기반을 확대시킴으로써 소비증가, 투자증가, 세수확보 등을 가능케 하여 지역의 역동성과 존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자체는 인구유입을 위해 각종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증가 및 감소는 출생이나 사망과 같은 자연적 요인뿐만 아니라 전입이나 전출과 같은 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도 나타나므로 인구이동의 원인이나 방향을 위시한 지역의 인구이동 특성에 대한 연구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정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기본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 속성, 전입 지역 및 전출 지역별로 층복으로의 전입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충청북도¹⁾ 시·군별 외부이동²⁾을 연구대상으로,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시스템(MDSS)에서 제공하는 국내인구이동 통계데이터³⁾를 이용한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인구이동의 영향과 원인 등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성우(2002) 독립이동과 연계이동의 이동유형에 대한 새로운 모형을 설정하고 유형별 인구이동의 효과로서 이동에 따른 개인의 고용확률을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지역특성은 독립이동자와 연계이동자 모두에게 중요한 이동결정요인이고, 특히 독립이동자들의 목적지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독립이동을 선택한 계층은 주로 경제활동성이 높은 30대 이상의 고학력 남자로 고용확률이 높은 반면, 연계이동자의 경우 연령과 학력수준이 낮은 낮고, 이혼·사별 등 가족변화를 겪은 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은영·조대현(2005)은 서울시 인구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내 인구이동의 지리적 특성을 밝히고, 아파트 평당 매매가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이동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근거리이동의 지배적인 패턴은 인접한 모든 지역이 아니라 특정지역 사이에서 관찰되므로 서울시 내부 인구이동의 지리적 특성인 근거리이동은 거리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접한 지역 간의 경제적 유사성 및 주택시장의 분절화에 따른 인구이동에 있어서의

1) 충청북도 주민등록인구는 2003년 1,489,635명에서 2012년 1,565,628명으로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0.55%로 특별·광역시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충남(0.65%), 경남(0.62%)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충북 주민등록인구는 2007년 이후 150만명을 돌파하였고 2008년에는 저출산에 따른 신생아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13천명이 증가하는 등 2008년은 충북 인구성장의 전환기로 볼 수 있기에 2008년을 연구시점으로 설정하였다.

2) 본 연구에서는 외부이동을 기초자치단체 외부로부터의 전입, 내부이동을 기초자치단체 내부에서 내부로의 이동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면, 서울, 용인, 충주, 보은에서 청주로의 전입은 외부이동, 청주에서 청주로의 전입은 내부이동이다.

3) MDSS에서 제공되는 국내인구이동 통계데이터는 2001년 이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정보를 개인별로 DB화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인구이동 방향성, 총량, 전입 사유, 전입자 관계, 나이, 성별 등 개인속성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약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권기철(2006)은 부산과 경남권을 대상으로 지역 간의 인구이동에 대한 독립변수로 목적지의 제조업 종사자수, 고용률, 1인당 GRDP를 선정하여 제조업의 고용상황 변화가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1970년~2003년간 두 지역 간 인구이동에서 제조업 종사자수의 변동이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냈다.

김현아(2008)는 재정정책이 우리나라 광역지자체간 및 기초지자체간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순재정편익이 지역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은 이주에 따른 투자수단임이 확인되었고, 전세가격은 비수도권에 한하여 지역간 이동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의 순재정편익이 인구유입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비수도권에 대한 이전재원이 이러한 인구유입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호(2008)는 1997년 통계청에서 시행한 인구이동 특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5년간 시·도간 이동경험이 있는 가구주와 단독가구주를 대상으로 이동의 선별성과 이동사유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전입에는 직업요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출에는 직업요인과 가족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동성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20대와 30대 초반이 다른 연령층보다,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학력 젊은 세대의 취업관련 이동이 수도권 인구집중의 가장 큰 요인 이므로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최은영·구동희·조순기(2010)는 부산 대도시권 인구이동의 특성과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동 가구의 특성과 인구이동의 선택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부산에서 유출되는 가구는 25~34세 연령대의 고학력자이고 1인 가구 비율이 높으며, 자가 거주비율이 낮음을 밝혀냈다.

임동일(2010)은 춘천, 원주, 강릉 등 강원도 3대 도시를 대상으로 1999년~2008년의 인구이동 추이와 함께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의 특성에 대해 통계연보에서 확보한 인구이동량을 종속 변수로 하고, 고용기회, 교육기회, 공공재수혜, 도시화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용기회와 교육기회가 인구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다. 또한 도시화의 정도가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도로포장률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지만 인구유입에 부의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박주혜 등(2010)은 지역 인구이동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이동의 방향과 전출지와 전입지의 관계 및 관계의 비중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조사기간 동안 전국과 충북의 인구이동 측면에서 청주시 흥덕구로의 인구유입 규모가 가장 컸고 충북으로 유입한 인구의 주된 전출지는 경기도와 서울이며, 2001년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한 광역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였으나 2008년에는 충남으로 그 순위가 바뀌었음을 밝혀냈다.

민경희(2011)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전국이나 수도권 단위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낙

후된 지방에서의 인구이동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과 충청북도 내에서도 청주시로 인구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1980~2010년간의 충북인구의 변화를 살펴보고 2000년대의 인구이동을 이동자 비율, 이동의 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한 인구이동총량의 동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청주, 충주, 제천의 3개 시 지역에서는 시내이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청주시의 인구 유인력이 모든 군에 미치고 있으나 그 힘이 약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청주시와 청원군 간의 인구교류가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북의 시·군으로 전입하는 이동건수 중 1인 이동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이 비율은 전입자의 전출지역 규모에 따라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의 순서로 낮아지고, 전출지역이 충북 내 지역인 경우보다 충북 외 지역인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위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들은 분석의 최소단위를 시·도로 설정하여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인구이동 수는 인구총조사의 인구이동특별조사 원자료나 통계연보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에 기인한다. 통계청의 표본조사를 제외하면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맞도록 데이터를 가공하여 기원지와 목적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MDSS를 활용하면 인구이동 전수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5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을 밝히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및 분석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충북지역 시·군단위의 인구이동 현황과 그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 속성, 전입 및 전출 지역별로 전입사유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언한다.

II. 연구방법

1. 자료구축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MDSS에서 텍스트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마이크로 데이터(통계원시자료)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사용한다. 첫째, MDSS에서 2008년 인구부문-국내인구이동통계-인구관련 연간자료 6,628,314건을 추출한다. 둘째, 추출된 인구관련 연간자료를 연구목적에 맞게 재추출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북도 12개 시·군이므로 전입행정 시·도를 충청북도로 하고, 전입행정 시·군·구를 청주·충주·제천 등 12개 시·군으로 설정하여 추출하였다. 셋째, 인구이동 데이터는 지역 내 인구이동(내부이동)과 지역 간 인구이동(도시외부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외부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요인을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지역 내 인구이동(도시 내부이동)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MDSS의 국내인구이동통계 기초자료는 주민등록시 작성하는 전입신고서이다. 전입신고서는 전입지(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입년월일, 전입구분(세대구성, 다른 세대로 편입, 세대합가), 전출지(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출구분(세대전부, 세대일부(세대주 포함), 세대일부(세대주 없이)), 전입사유(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전입자 세대주여부, 전입자 생년월일, 전입자 성별 등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 속성별, 전입 지역별, 전출 지역별 인구이동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전입지(시·군·구), 전출지(시·도), 전입자 생년월일 및 성별을 분석에 활용한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충북 전입인구에 있어 전입지 규모, 전출 지역, 개인 속성, 인구이동 유형별 이전요인 간의 차이여부에 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전입 시·군별 인구이동요인, 둘째, 전출 시·도별 인구이동요인, 셋째, 개인 속성별 인구이동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도록 한다. 전입사유는 7개의 명목척도인 범주형 데이터(categorical variables)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차집계표를 기초로 추정한 카이제곱(Chi-squared) 추정치로 각 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룹 간에 유의차(有意差)를 판단하는 카이제곱값이 카이제곱분포표상의 자유도별 유의수준의 임계치보다 크면 그룹 간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유의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룹 개수 또는 카테고리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를 $K \times L$ 분할표라고 하는데, <표 1>과 같이 구성된다. 셀별 행 및 열의 소계를 이용하여 식①과 같이 카이제곱값을 구할 수 있다.

<표 1> $K \times L$ 분할표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	카테고리 L	소계
그룹 I	f_{11}	f_{12}	...	f_{1L}	$f_{1.}$
그룹 II	f_{21}	f_{22}	...	f_{2L}	$f_{2.}$
...
그룹 K	f_{k1}	f_{k2}	...	f_{kL}	$f_{k.}$
소계	$f_{.1}$	$f_{.2}$...	$f_{.L}$	n

$$\chi^2 = n \times \left\{ \frac{\text{셀}_{1.1} \text{의 빈도수 제곱}}{\text{셀}_{1.1} \text{의 (행 소계} \times \text{열 소계)}} + \dots + \frac{\text{셀}_{k.L} \text{의 빈도수 제곱}}{\text{셀}_{k.L} \text{의 (행 소계} \times \text{열 소계)}} - 1 \right\} \quad \text{식①}$$

Ⅲ. 연구결과

1. 충청북도 전입인구의 이전요인 분석

2008년에 충북으로 전입한 194,085건의 인구이동 중, 도내 내부이동은 133,017건(68.5%), 도외지역으로부터의 외부이동은 61,068건(31.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기초자치단체이므로 도내 내부이동건수를 시·군간 이동과 시·군내 이동으로 구분하여 인구이동건수를 재분류하였는데, 충북도내 시·군간 이동은 32,438건, 시·군내 이동은 100,579건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구이동건수는 도외지역으로부터의 외부이동(61,068건)과 도내 지자체간 이동(32,438건)을 합친 93,506건이다.

시·군별 인구이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내부이동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청주시로 61.9%이고, 다음으로 충주시 58.7%, 제천시 53.7%로 나타났다. 한편, 외부이동 비율이 높은 지역은 청원군으로 73.0%, 다음으로 괴산군 65.9%, 영동군 61.6%의 순이다. 내부이동과 외부이동 비율을 시(市)지역과 군(郡)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청주, 충주, 제천과 같은 시지역에서는 내부이동비율이 높고, 청원, 괴산, 영동과 같은 군지역에서는 외부이동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2> 시군별 인구이동 현황

	내부이동		외부이동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청주시	52,096	61.9	32,001	38.1	84,097	100.0
충주시	14,357	58.7	10,113	41.3	24,470	100.0
제천시	8,322	53.7	7,179	46.3	15,501	100.0
청원군	6,054	27.0	16,382	73.0	22,436	100.0
보은군	1,688	43.1	2,225	56.9	3,913	100.0
옥천군	2,143	40.6	3,132	59.4	5,275	100.0
영동군	2,176	38.4	3,492	61.6	5,668	100.0
증평군	2,271	44.4	2,841	55.6	5,112	100.0
진천군	3,454	43.8	4,429	56.2	7,883	100.0
괴산군	1,389	34.1	2,689	65.9	4,078	100.0
음성군	5,396	43.1	7,115	56.9	12,511	100.0
단양군	1,233	39.3	1,908	60.7	3,1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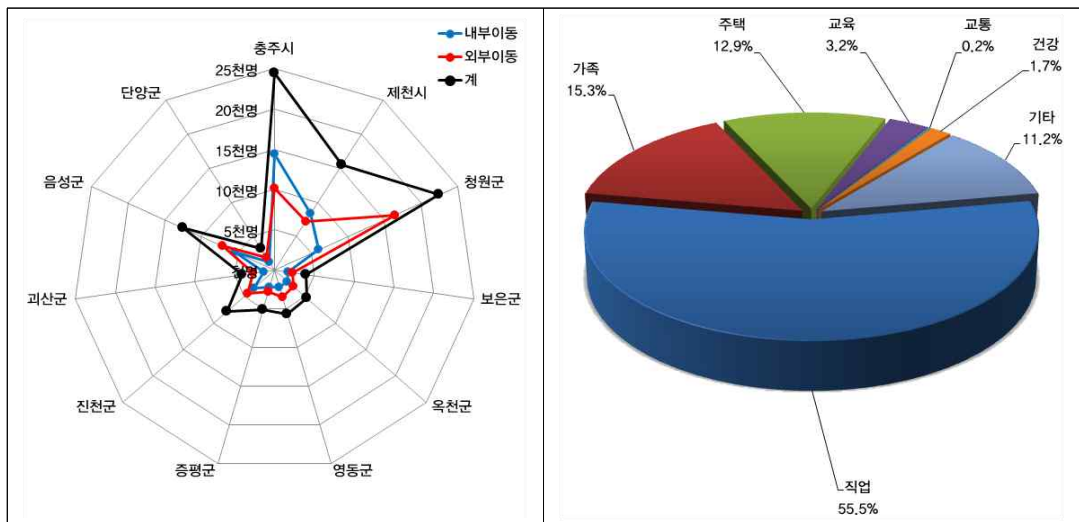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국내인구이동통계”, 2008

12개 시군별 외부이동에 대한 전입요인을 살펴보면, 직업요인이 약 55.5%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가족요인 15.3%, 주택요인 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사유가 10,498건으로 전체의 1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료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MDSS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입사유를 더욱 세분화해야 할 것이다.

<표 3> 충북지역 시·군별 외부이동 요인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합계
빈도	51,868	14,318	12,053	3,007	176	1,586	10,498	93,506
비율	55.5%	15.3%	12.9%	3.2%	0.2%	1.7%	11.2%	100.0%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국내인구이동통계”, 2008



<그림 1> 시군별 인구이동 현황 및 외부이동 사유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국내인구이동통계”, 2008

2. 개인 속성별 분석

연령대별로 전입요인을 살펴보면, 10대는 직업(41.3%), 가족(22.6%), 교육(22.2%) 요인이, 20대는 직업(58.5%), 가족(18.0%), 주택(9.5%) 요인이, 30대는 직업(61.2%), 주택(13.4%), 가족(12.8%) 요인이, 40대는 직업(58.6%), 주택(15.0%), 가족(10.2%) 요인이, 50대는 직업(52.2%), 주택(17.3%), 가족(13.0%) 요인이, 60대 이상은 직업(41.5%), 가족(20.0%), 주택(17.6%)이 전입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직업요인은 30대에 61.2%로 정점에 달했다가 감소세로 전환되어 60대 이상에서는 41.5%까지 줄어들었다. 가족요인은 40대에서 저점을 보인 후, 50대 13.0%, 60대 이상 20.0%까지 증가했다. 주택요인은 30대부터 높아지면서 60대 이상에서는 17.6%까지 증가하였다. 교육요인은 10대 이후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강요인은 40대부터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데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건강요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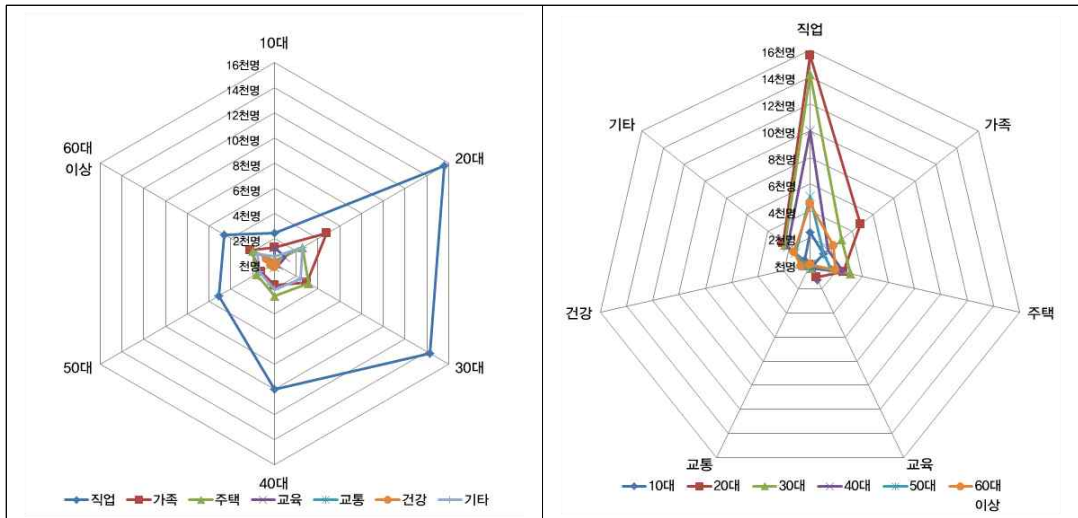
성별 전입요인을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충북 전체의 패턴과 동일하게 직업→가족→주택요인 순으로 나타난 반면, 남자의 경우 직업→주택→가족요인 순으로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전입자의 연령·성별 등 개인 속성별로 전입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개인 속성별로 전입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개인 속성별 전입요인 및 카이제곱검증 결과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합계	χ^2 검증
연령	10대	2,391	1,310	219	1,286	15	22	546	5,789	$\chi^2=12,438.547$ df=30 P=0.000 (양측검정)
		41.3%	22.6%	3.8%	22.2%	0.3%	0.4%	9.4%	100.0%	
	20대	15,608	4,818	2,545	1,017	60	91	2,554	26,693	
		58.5%	18.0%	9.5%	3.8%	0.2%	0.3%	9.6%	100.0%	
	30대	14,230	2,976	3,114	315	47	184	2,377	23,243	
		61.2%	12.8%	13.4%	1.4%	0.2%	0.8%	10.2%	100.0%	
	40대	9,977	1,737	2,552	316	34	292	2,109	17,017	
		58.6%	10.2%	15.0%	1.9%	0.2%	1.7%	12.4%	100.0%	
	50대	5,081	1,269	1,682	42	14	288	1,361	9,737	
		52.2%	13.0%	17.3%	0.4%	0.1%	3.0%	14.0%	100.0%	
	60대 이상	4,581	2,208	1,941	31	6	709	1,551	11,027	
		41.5%	20.0%	17.6%	0.3%	0.1%	6.4%	14.1%	100.0%	
성별	남자	31,430	6,292	6,937	1,677	107	805	5,696	52,944	$\chi^2=1,322.897$ df=6 P=0.000 (양측검정)
		59.4%	11.9%	13.1%	3.2%	0.2%	1.5%	10.8%	100.0%	
	여자	20,438	8,026	5,116	1,330	69	781	4,802	40,562	
		50.4%	19.8%	12.6%	3.3%	0.2%	1.9%	11.8%	100.0%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국내인구이동통계”, 2008



<그림 2> 개인 속성 및 연령별 전입요인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국내인구이동통계”, 2008

3. 지역별 전입요인 분석

충북은 지역에 따라 직업→가족→주택, 또는 직업→주택→가족 순의 전입요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충북 전체의 패턴과 동일하게 직업→가족→주택의 패턴을 보이는 지역은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이고, 직업→주택→가족의 경우는 청주, 청원, 증평이었다. 주택요인이 가족요인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주거환경의 매력도가 타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직업요인이 충북평균보다 높은 음성(69.5%), 청주(64.1%), 청원(58.9%)은 충북의 대표적인 제조업 발달지역으로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공장의 증가가 직업요인을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요인이 높은 영동과 제천은 대학의 입지해 있는 지역으로 대학생들의 전입이 교육요인을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요인이 높은 단양, 옥천, 괴산, 영동, 보은, 진천, 제천, 충주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으로 향후에 전입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휴양·요양을 위한 단지나 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전입 지역별로 전입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충북 12개 시·군별로 전입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전입 지역별 전입요인 및 카이제곱검증 결과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합계	χ^2 검증
청주	20,498	2,941	4,345	851	53	107	3,206	32,001	$\chi^2=8,530.196$ 자유도=66 유의확률=0.000 (양측검정)
	64.1%	9.2%	13.6%	2.7%	0.2%	0.3%	10.0%	100.0%	
충주	4,675	2,148	1,573	376	11	186	1,144	10,113	
	46.2%	21.2%	15.6%	3.7%	0.1%	1.8%	11.3%	100.0%	
제천	3,314	1,206	713	477	8	176	1,285	7,179	
	46.2%	16.8%	9.9%	6.6%	0.1%	2.5%	17.9%	100.0%	
청원	9,650	2,467	2,488	412	38	268	1,059	16,382	
	58.9%	15.1%	15.2%	2.5%	0.2%	1.6%	6.5%	100.0%	
보은	701	654	261	55	7	82	465	2,225	
	31.5%	29.4%	11.7%	2.5%	0.3%	3.7%	20.9%	100.0%	
옥천	1,425	730	395	82	11	161	328	3,132	
	45.5%	23.3%	12.6%	2.6%	0.4%	5.1%	10.5%	100.0%	
영동	990	974	288	379	3	134	724	3,492	
	28.4%	27.9%	8.2%	10.9%	0.1%	3.8%	20.7%	100.0%	
증평	1,539	467	554	43	12	25	201	2,841	
	54.2%	16.4%	19.5%	1.5%	0.4%	0.9%	7.1%	100.0%	
진천	2,435	832	412	103	18	150	479	4,429	
	55.0%	18.8%	9.3%	2.3%	0.4%	3.4%	10.8%	100.0%	
괴산	928	671	418	86	5	131	450	2,689	
	34.5%	25.0%	15.5%	3.2%	0.2%	4.9%	16.7%	100.0%	
음성	4,942	781	396	85	7	55	849	7,115	
	69.5%	11.0%	5.6%	1.2%	0.1%	0.8%	11.9%	100.0%	
단양	771	447	210	58	3	111	308	1,908	
	40.4%	23.4%	11.0%	3.0%	0.2%	5.8%	16.1%	100.0%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국내인구이동통계”, 2008

4. 전출 지역별 분석

충북 시·군별 외부이동의 전입요인은 직업→가족→주택 순인데, 전출 지역이 서울, 대전, 충북, 제주인 경우에는 주택요인이 가족요인보다 높아 직업→주택→가족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직업요인의 비율은 전북(63.7%), 광주(63.7%), 대구(63.3%), 전남(61.6%), 부산(61.4%), 경남(60.5%) 등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족요인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19.5%에 달했고 서울 17.3%, 제주 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요인의 충북 평균 비율은 3.2%에 불과하였으나, 인천(4.5%), 전남(4.5%), 광주(4.4%), 부산(4.2%)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 울산, 강원, 경북, 경남에서 평균을 상회하였다. 반면 충북 인접지역인 대전(1.9%)과 충남(3.0)의 경우에는 교육요인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전출 시·도별로 충북지역 전입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

시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전국 시·도에서 충북으로의 전입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전출 지역별 전입요인 및 카이제곱검증 결과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합계	χ^2 검증
서울	5,987	2,012	1,384	415	9	287	1,518	11,612	$\chi^2=991.016$ 자유도=90 유의확률=0.000 (양측검정)
	51.6%	17.3%	11.9%	3.6%	0.1%	2.5%	13.1%	100.0%	
부산	884	170	131	60	0	31	163	1,439	
	61.4%	11.8%	9.1%	4.2%	0.0%	2.2%	11.3%	100.0%	
대구	836	172	119	36	0	23	134	1,320	
	63.3%	13.0%	9.0%	2.7%	0.0%	1.7%	10.2%	100.0%	
인천	1,784	457	392	147	5	78	391	3,254	
	54.8%	14.0%	12.0%	4.5%	0.2%	2.4%	12.0%	100.0%	
광주	402	70	70	28	0	7	54	631	
	63.7%	11.1%	11.1%	4.4%	0.0%	1.1%	8.6%	100.0%	
대전	3,612	1,350	875	135	13	126	817	6,928	
	52.1%	19.5%	12.6%	1.9%	0.2%	1.8%	11.8%	100.0%	
울산	393	89	83	24	0	17	83	689	
	57.0%	12.9%	12.0%	3.5%	0.0%	2.5%	12.0%	100.0%	
경기	9,652	2,520	2,099	648	17	356	2,025	17,317	
	55.7%	14.6%	12.1%	3.7%	0.1%	2.1%	11.7%	100.0%	
강원	1,938	496	394	128	5	69	457	3,487	
	55.6%	14.2%	11.3%	3.7%	0.1%	2.0%	13.1%	100.0%	
충북	17,788	4,936	4,935	898	111	410	3,360	32,438	
	54.8%	15.2%	15.2%	2.8%	0.3%	1.3%	10.4%	100.0%	
충남	3,736	908	777	191	12	74	608	6,306	
	59.2%	14.4%	12.3%	3.0%	0.2%	1.2%	9.6%	100.0%	
전북	1,046	209	156	48	0	18	164	1,641	
	63.7%	12.7%	9.5%	2.9%	0.0%	1.1%	10.0%	100.0%	
전남	654	133	105	48	2	9	110	1,061	
	61.6%	12.5%	9.9%	4.5%	0.2%	0.8%	10.4%	100.0%	
경북	1,905	493	313	129	1	43	413	3,297	
	57.8%	15.0%	9.5%	3.9%	0.0%	1.3%	12.5%	100.0%	
경남	1,047	247	185	66	1	30	155	1,731	
	60.5%	14.3%	10.7%	3.8%	0.1%	1.7%	9.0%	100.0%	
제주	204	56	35	6	0	8	46	355	
	57.5%	15.8%	9.9%	1.7%	0.0%	2.3%	13.0%	100.0%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국내인구이동통계", 2008

IV. 결론

본 연구는 개인 속성, 전입 지역 및 전출 지역별로 충북으로의 전입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의 MDSS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성별 등 개인 속성, 전입 시·군, 전출 시·도별로 전입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에 의한 카이제곱검증(Chi-square tests)을 실시한 결과, 99% 신뢰구간에서 전입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2008년에 충북으로 전입한 194,085건의 인구이동 중, 도내 내부이동은 133,017건(68.5%), 도외 지역으로부터의 외부이동은 61,068건(31.5%)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주, 충주, 제천과 같은 시(市)지역에서는 내부이동비율이 높은 반면, 청원, 괴산, 영동과 같은 군(郡)지역에서는 외부이동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12개 시군별 외부이동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직업이고, 다음으로 가족, 주택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대별 전입요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족요인과 교육요인의 비율이 높았는데 학생비율이 높은 10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20대의 경우에는 교육요인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드는 대신에 직업요인이 높아졌다. 직업요인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 정점을 보인 후,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60대에는 10대와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30대부터는 주택요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여 60대에서 가장 높았다. 가족요인의 경우에도 40대에서 저점을 보인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여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넷째, 성별 전입요인을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충북 전체의 패턴과 동일하게 직업→가족→주택요인 순으로 나타난 반면, 남자의 경우 직업→주택→가족요인 순으로 상이한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시·군 또는 시·도를 넘나드는 활발한 구직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전입 지역별 전입요인을 살펴보면, 청주, 청원, 증평은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주택요인이 가족요인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요인이 충북평균보다 높은 음성, 청주, 청원은 충북의 대표적인 제조업 발달지역으로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공장의 증가가 직업요인을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요인이 높은 영동과 제천은 대학의 입지해 있는 지역으로 대학생들의 전입이 교육요인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전출 지역이 서울, 대전, 충북, 제주인 경우에는 주택요인의 비율이 가족요인보다 높아 직업→주택→가족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직업요인의 비율은 영남지역과 호남지역, 가족요인은 대전, 서울, 제주 등지에서 높았다. 교육요인은 인천, 전남, 광주, 부산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등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평균을 상회하였다. 반면에 충북 인접지역인 대전과 충남의 경우에는 교육요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데이터의 한계이다. 7가지 전입요인 중 기타사유가 전체의 1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료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MDSS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입요인 항목을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방법 차원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인구이동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인구이동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다 유의성 있고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계열데이터를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전입요인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인구이동의 기원지와 목적지 간의 위상관계, 전입율과 전출률 등 인구이동률 변화와 인구이동의 중심성변화 등 인구이동과 공간변화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실시한다면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문헌】

- 권기철, 2006, “부산광역시권의 제조업 고용 변동과 인구이동의 관계 및 인구이동의 균형화 효과”. 「경제연구」. 제24권 3호. 한국경제통상학회. pp.97-123
- 권상철, 2009,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지역구조: 이동권역과 공간적 인구재분배 지역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2권 2호. 한국도시지리학회. pp.49-63
- 김현아, 2008, “지역간 인구이동의 실증분석”. 「응용경제」. 제10권 2호. 한국응용경제학회. pp.75-103
- 이성우, 2002, “지역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이동과 연계이동”. 「지역연구」. 제18권 1호. 한국지역학회. pp.49-82
- 민경희, 2011, “충청북도의 인구이동, 2000-2010년”.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1호.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pp.31-61
- 박주혜·홍성호·안유정·이만형, 2010, “중앙성 지표에 따른 충청북도 인구이동 특성 : 2001년과 2008년 사례 비교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6권 제4호. 한국지역지리학회. pp. 369-386
- 임동일, 2011, “강원도 3대 도시의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1호. 한국콘텐츠학회. pp.411-421
- 최은영·구동희·조순기, 2010,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II): 이동가구 특성과 선택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6권 2호. 한국지역지리학회. pp.123-136
- 최은영·조대현, 2005, “서울시 내부 인구이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한국지역지리학회. pp.169-186
- 최진호, 2008, “한국 지역 간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이동이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1권 3호. 한국인구학회. pp.159-178

접수일 : 2014. 06. 02

확정일 : 2014. 06. 18